

회원사 소식

SK텔레콤, 무선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은 이동전화와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를 통해 이동중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체크」 서비스를 이달 3일부터 개시했다.

서비스에는 SK텔레콤과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인 NICE(대표 김성도), 한창시스템(대표 김덕수) 등과 공동 개발한 무선신용카드 조회기가 이용됐다.

이 체크기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조회, 승인, 수표조회는 물론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직불카드 승인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특정 단일 모델의 휴대폰만을 사용해야 했던 단점을 보완, 무선데이터 통신기능(IWF)이 내장된 단말기라면 어떤 기종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료 없이 유선 서비스 대비 최고 80% 이상 저렴하며, 신용정보 조회시간도 평균 4~6초로 빠르다.

SK텔레콤은 기존 유선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가 어려운 원격지 영업소나 배달업소, 이동영업직, 가판 및 특판, 화물차 및 택시 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집, 피자집 등에 급속 보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011 이동전화 단말기와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 및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하다. 이동전화 단말기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무선 신용카드 조회기와 데이터 케이블은 전국 NICE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LG정보통신, 국내 최초 WAP접속시스템 개발

LG정보통신(대표 서평원)이 국내 업계 최초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접속시스템(모델명 DOORS II)을 개발해 본격 공급에 나섰다.

이 회사의 WAP게이트웨이시스템은 무선인터넷 접속용으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변환시켜 휴대폰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외산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과 성능을 갖고 있으며, 원활한 기능 업그레이드는 물론 유지 보수상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LG정보통신은 이미 이 제품을 SK텔레콤에 공급해 상용서비스를 지원중이어서 2002년까지 약 2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미국 벨에틀랜틱모바일(BAM) 및 러시아 모바일텔레시스템(MTS) 등의 업체들에 제안설명회를 마치는 등 해외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데이콤, 4월부터 이지 컬렉트콜서비스

해외에서 국내로 착신자부담전화(컬렉트콜)를 걸 때 별도의 교환안내를 거치지 않고 음성안내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데이콤(대표 정규석)은 지난 3월 29일 국제전화이용시 안내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착신자부담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지 컬렉트콜서비스」를 이달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능형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지 컬렉트콜서비스」는 「최초 3분+1분」식으로 적용되던 기존 국제전화 과금제계를 「최초 1분+1분」으로 변경, 기존 수동방식 컬렉트콜보다 7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하다.

데이콤은 또 착신 측의 사정에 따라 연결시간이 지체되면 자동으로 교환안내와 연결되도록 했으며 계속해서 착신 측이 통화중이거나 무응답일 경우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외에서 해당 국가별 고유 이용번호를 누르고 음성안내에 따라 상대방 전화번호와 #버튼을 차례로 누르고 통화상대방을 직접 확인한 후 통화하면 된다. 해외에선 일반전화, 공중전화, 이동전화 등 모든 음성전화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국내에선 일반전화와 이동전화를 통해 수신이 가능하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이며, 데이콤은 올해 내에 전세계 50여개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앤지텔레콤, 사명변경 새출발

지앤지텔레콤이 회사이름을 지앤지네트웍스로 바꾸고 인터넷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공식 선언했다.

지앤지네트웍스(대표 서명환)는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전용회선 임대사업 중심에서 인터넷기반 종합통신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비전을 확정, 발표했다.

지앤지네트웍스는 이번 사명 교체와 함께 △아시아지역 선도 데이터통신망 구축 △동북아 인터넷백분망의 중심축 부상 △인터넷업체간 전략적 제휴 핵심 역할 수행 △아시아 최대의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등 4개 전략을 향후 사업의 핵심축으로 설정했다.

이 업체는 이러한 비전 달성과 함께 올 한 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 신규사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와 도시형 네트워크(MAN:Metropolitan Area Network) 서비스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VoIP 서비스의 경우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관련 시장 공략의 선행과제로 잡고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업체들과의 차별성 부각에 중점을 두고 MAN 서비스는 링형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신개념의 비용 절감형 초고속통신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통프리텔, 올 10월까지 나스닥 상장키로

한국통신프리텔(대표 김우식)이 이동전화 업계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다.

한통프리텔은 총 5억 달러 규모의 주식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를 발행키로 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나스닥에 상장키로 했다.

한통프리텔은 4월 중 국내외 유력사를 대상으로 주간사를 선정한 후 8월까지 상장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 미국, 런던, 홍콩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최종 등록은 10월 중 미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나스닥 상장 유

회원사 소식

효 선언과 함께 이뤄지며 총 5억 달러 규모의 DR 발행이 수반된다.

한통프리텔의 나스닥 상장 추진은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자본채휴시 약속된 사항이다.

한통프리텔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으로 초고속 무선인터넷 상용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통신, 프레임릴레이 고속 다이얼업 접속 서비스 출시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출장이 잦은 직원이 전화망을 이용해 본사와 고속(56Kbps)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프레임릴레이 신규 서비스를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프레임릴레이 고속 데이터망을 더욱 발전시킨 SVC서비스와 다이얼업 접속서비스 두 종류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장으로 이동이 빈번한 업체의 직원들이 전화망으로 프레임릴레이망으로 구축돼 있는 본사나 지사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가입자 요금은 ID당 6000원이며 사용요금은 분당 20원이다.

SVC(Switched Virtual Circuit)서비스는 PC통신 환경에서 정보제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IP(정보제공자)의 호스트 회선에 적합한 서비스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보다 빠른 속도와 향상된 품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PC통신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받던 이용 고객들의 통신품질이 향상된다.

다이얼업 접속서비스는 프레임릴레이망으로 구축돼 있는 본사나 지사의 호스트를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망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한국통신은 『이번 신규 서비스 출시로 데이터 상품에 대한 다양해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용회선 등 데이터 시장에서 안정된 기업전산망 구축 및 PC통신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프레임릴레이 서비스란 LAN으로 구성된 기업체의 본, 지사간 프로토콜 처리를 간략화해 단순히 데이터프레임들의 중계 기능과 다중화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지연을 감소시켜 고속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서울이통, 4월부터 통합메시징서비스

서울이동통신(대표 윤창용)이 이달 4월부터 통합메시징서비스(UMS)를 제공한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기존 유무선 전화의 음성은 물론 문자메시지, e메일 등 모든 메시징수단을 하나로 통합한 「UMS 애니포메일(<http://www.any4mail.com>)」서비스를 지난 4월 10일부터 시범운영해 왔다. 업체 관계자는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정식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기통신, 장외주식 정보서비스 제공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이 국내 장외주식 정보를 무선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신세기통신은 제이스탁(<http://www.jstock.com>)과 제휴, 지난달 24일부터 자사 무선인터넷서비스(<http://www.itouch017.com>)를 통해 「장외주식 전용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신세기통신은 국내 거래시장, 코스닥, 미국 나스닥, 다우지수정보 제공에 이어 장외주식정보서비스에 나섬에 따라 모든 주식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게 됐다.

이 서비스는 관심종목 정보, 비상장뉴스 속보, 금일 시장분석 사이트 등으로 운영된다.

관심종목 정보는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세기통신, 삼성SDS 등 대표적인 22개 장외 대형주들의 현재가와 기업정보, 관련기사를 회사별로 제공한다.

비상장 뉴스 속보는 제3시장 및 장외시장 동향이나 최신정보를, 금일 시장분석 사이트는 시장분석 자료와 함께 기업분석 및 투자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휴대폰으로 신세기통신 무선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증권」 「JSTOCK」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삼보정보통신, 현대택배에 CTI 콜센터 공급

인터넷, 통신 솔루션 업체인 삼보정보통신(대표 오근수)은 현대택배의 컴퓨터통신통합(CTI)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CTI 업체가 택배업계에 CTI 콜센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삼보정보통신은 고객상담 콜센터 서비스에 활용될 CTI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대택배는 CTI 콜센터 구축작업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24시간 고객상담, 택배의 퇴 및 접수, 화물추적서비스 안내, 화물사고 접수 등의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보정보통신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택배업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권, 통신서비스업체, 중소기업체 등으로 한정돼 있던 고객층을 기타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각 업종에 적용 가능한 차별화한 CTI 기능을 개발, 다양한 솔루션으로 상품화해 올해 CTI 부문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나로통신, 4월 1일부터 초고속엄마 페스티벌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은 주부층의 인터넷 이용 확산을 위해 「땡큐! 초고속엄마 페스티벌」 행사를 지난 4월 1일부터 개최 중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시 1주년을 기념해 4월 한 달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 기간 중에 가정 및 기업용 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 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가입비는 물론 설치비까지 완전히 면제해준다. 또 행사기간 중 주부 2500명의 신청을 받아 5월 중 5일 동안 인터넷 활용기술을 교육하는 「네티퀸(Net-Queen)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